



1 해외 사회공헌 활동 2 케어워터 사랑샘터 서비스 3 사랑 나눔 의료봉사

상생·사랑·희망 나눔도 물 흐르듯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물이 여는 미래, 물로 나누는 행복'을 실현하고자 사회공헌 통합 브랜드 '해피워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 7월 창단한 임직원 사회공헌 단체 '물사랑나눔단'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 활동 재원은 공기업 최초로 급여의 1% 나눔운동을 통해 조성한 '물사랑 펀드'와 회사에서 출연한 '매칭 그랜트'를 활용하고 있다.

공사의 활동은 자원봉사 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해외봉사 부문 대상, 사회공헌 대상 CSV 부문 대상, 아태스티비상 기업 커뮤니케이션 은상 등을 수상했다.

공사는 물 복지를 확대하고 공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상생가득수(水)'라는 세부 테마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기획해 실천하고 있다.

이 테마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케어워터(K-water) 사랑샘터' 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빨래와 샤워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등 소외 계층에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 물을 제공한다. 공사는 이를 위해 세탁과 샤워 기능을 갖춘 5t 특수차량을 제작했다.

서비스 도입 처음에는 취약 계층에서 목욕과 빨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차량을 제공하다 지역의 자원봉사 단체 등과 연계해 의료 지원, 복지 상담, 이·미용 봉사 등을 한 자리에서 원스톱(One-stop) 제공하는 지금의 토탈 서비스로 확대했다.

특수 차량에는 드럼세탁기(21kg) 2대, 일반세탁기(22kg) 1대, 건조기(16kg) 1대, 샤워부스 2개를 탑재했다. 2019년 고령군에서부터 시작해 대구 쪽방촌, 경북 울진 태풍 피해지역에 이르기까지 총 44회 1천142건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세탁 전용 3t 특수차량을 추가로 제작해 운영한다.

공사는 2013년 10월부터 저소득층 주택과 복지시설의 노후수도 시설 및 부속, 욕실 등 물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행복가득수(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에만 61개소를 개선했다.

지역 자활기업이 시공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전국 515개소 1만4천156명의 물 사용 환경을 개선했다. 자활기업에는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를 일정 비율로 고용해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공사는 2006년부터 몽골, 캄보디아 등 식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주민에게 필요한 식수 개발과 저수지 조성, 관정·물탱크, 급수대 설치 등 현재까지 10개국에서 34회에 이르는 지원 활동을 펼쳤다.

공사는 국제기구와 협업해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돕는 '케어워터 해피워터 스쿨'을 추진 중이다. ⑦